

중국 소비자들이 서양삼에 대한 신뢰도 높다는 것이다. 서양삼에 비해 한국인삼은 인지도나 선호도 면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삼의 장점은 체력(스테미너)강화, 부작용은 승열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로잡는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소비자들은 대부분 약국에서 인삼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제품이나 모조품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약국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 한국과 중국의 인삼가격 동향

(1) 중국의 인삼가격 동향

중국 인삼의 유통시장은 산지, 도매, 소매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길림성 무송현에는 만량인삼도매시장이 있어 중국 인삼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매시장은 중의약방(약국)과 보건식품전문점이 대표적으로 거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인삼 구매 채널분포는 약국 37%, 보건식품전문점 29%, 대형마트 15%, 백화점 10%, 기타 9%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인터넷 몰 거래량이 증가 추세이나 고가식품으로 진품에 대한 의혹 등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인삼 가격은 2000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신선삼의 경우 kg당 40 元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인삼산업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시에 인삼재배면적을 제한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설정으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삼의 주산지인 길림성의 경우 산지 수집가격은 2010년 kg당 60 元, 2011년 80 元, 2012년 120 元, 2013년 140 元이었으며 품질이 좋은 신선삼은 260 元에 거래되는 것도 있다(박기환 등 농촌경제연구원).

인삼농가들이 인삼을 판매하는 방식은 인삼 수집상을 통한 판매, 가공업자들과 계약재배를 통한 출하 형태, 직접 인삼도매시장에 판매 등 다양하지만 인삼 재배조건이 삼림지대로 교통이 불편하므로 수집상에 판매하는 것이 주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분석된 자료는 만량시장에서 운영하는 길림인삼 전자상거래 교역센터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다.

(가) 중국의 2013년 인삼 가격동향

2013년 중국의 백삼 가격은 25지의 500g에 600-750元으로 한국의 직삼과 비슷하였으나 미삼보다는 높은 가격이었다. 지역별로는 四川省 荷花池가 500g에 750元으로 가장 높았으며 安徽省 亳州와 廣東省 清平 약재시장은 600元으로 낮게 형성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홍삼 가격은 30지의 500g에 800-900元으로 한국 홍삼 1,413 元보다 57%-64%의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지역별로는 안휘 호주와 河北省 安國藥市에서는 500g에 900元으로 높은 반면, 廣西 玉林, 廣州 清平은 800元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서양삼 가격은 장지의 경우 500g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750元이었으나 河北 지역에서는 420 元으로 낮았다(표 62~64).

표 62. 백삼 가격(25지)

(단위: 元/500g)

구 분	한 국		安徽 亳州	廣西 玉林	廣州 清平	河北 安國	四川 荷花地
	직삼	미삼					
10.23	650	358	600	680	600	690	750
10.28	650	358	600	680	600	690	750
지 수	100	55	92	105	92	106	115

* 자료: 길림인삼전자상거래교역센터, 2015년 인삼자료통계집(농림축산식품부)